

T V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진정성이 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SBS ‘추적자’ 평범한 소시민 대변한 백홍석 役 손현주



“아닙니다. 내가 보면서 아픈데 시청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죄송하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6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손현주(47)도 결말은 모른다고 했다. 대본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워낙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만큼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하나의 재미가, 계란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재미가 무치면 집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풀리지 않을까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신드롬을 일으키는 SBS 월화극 ‘추적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위해 나선 백홍석을 연기하는 손현주를 30일 인터뷰했다.
그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드라마는 처음”이라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 발씩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후반으로 갈수록 대본이 늦어지고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의 완성도도 지켜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디테일’이란, 백홍석의 잦은 ‘탈출’을 말한다. 너무 허술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망가는 것. 하지만 ‘추적자’가

반반적으로 치밀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까닭에 이는 ‘육에 티’ 정도로 옹서(?)되는 분위기가.
법정살인 직후부터 도망가 신세가 된 백홍석은 늘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아난다.
“처음에는 좀 버거웠는데 하도 뛰다 보니 이젠 뛰어다닐만해요. 물론 관질이 아프죠. 하지만 안 아프고 싶어요. 아프다고 하다가 나이가 많다고 핀잔 들을까 봐 내색 안해요. 하지만 이젠 총까지 맞은 상태라 도망 다닐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백홍석이 평범한 소시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했다.
손현주는 ‘추적자’ 신드롬에 대해 “진정한 진정성이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타지나 ‘트랜스퍼’류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추적자’는 현실을 그대로 들고와 그대로 벗겨놓았잖아요. 간만에 보는 정상적인, 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죠. 그러다 보니 모든 배우가 진정성을 담아 연기하고 있고 그게 8박자, 9박자, 10박자까지 앙상블을 이루죠.”
‘추적자’에는 소위 말하는 ‘스타’가 없다. 대신 손현주를 중심으로 박근형, 김성중, 김성령, 류승수, 강신일 등 연기와 배우가 준비하게 포진해있다.
“이 작품을 통해 묻힌, 숨어 있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하나씩 드러나길 바랍니다. 진주 같은 배우들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

라는 거죠. 스타의 주변인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배우 모두가 그 자체의 힘으로 기용되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추적자’는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는 진실이 밝혀질 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라.
“백홍석은 수정이의 아빠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로지 수정이의 죽음과 아내 미연이의 사고사뿐이죠. 그것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홍석 안에 정치가 어디 있고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무리없이 풀어가느냐가 남은 숙제이자 관건이겠죠.” /연협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5월 13일 甲子)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Includes birth year ranges and lucky/unlucky numbers.

EBS and EBS Plus 1/2 program schedules. Columns include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Dong-A Foreign Language' (동아 외국어학원) and 'Daeneungdu' (대능교육). Includes lesson content for 'I'll check them for you' and 'Spring is not like spring'.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Little China' (리틀차이나) and 'Kiasuka' (아스카일). Includes lesson content for 'Soil grows' (土生土长) and 'Winter is not as cold as before' (最近の冬は昔より寒くないですからね).